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21. 1. 15.(금) / 총 4매(본문4)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기획총괄과	담 당 자	• 과장 구본철, 사무관 박지윤 • ☎ (02) 2131-2022, 2023	
	서울특별시 전략계획과	담 당 자	• 과장 윤호중, 팀장 박상위, 주무관 신은진 • ☎ (02) 2133-2586, 2588	
	한국토지주택공사 용산공원사업부	담 당 자	• 부장 오홍택, 차장 김상용 • ☎ (02) 6908-9080	
보 도 일 시		1.16.(토) 15:00 이후 보도 가능		

16일 용산공원 국민참여단 온라인 발대식 개최

-명칭·사진공모전 시상식도 열려… 용산공원 을 최종 명칭으로 확정 발표-

- 용산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국민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 300명으로 구성된 ‘용산공원 국민참여단’(이하 “참여단”)의 첫 발걸음이 시작되었다.
-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(위원장 유홍준), 국토교통부(장관 변창흠), 서울특별시(시장 권한대행 서정협), 한국토지주택공사(사장 직무대행 장충모)은 16일 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.
 - 참여단은 유튜브 생중계 및 화상회의 시스템 등을 통해 참석하여 활동포부 등을 밝혔으며, 유홍준 위원장 및 국토교통부장관 등과 공원의 비전·조성방향에 대해 편안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. 발대식 영상은 용산공원 국민참여 누리집(www.yongsanparkstory.co.kr)에서 다시 볼 수 있다.
 - 지난 11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참여단 모집에 총 1,452명이 지원하였으며, 서류 심사와 온라인 면접을 통해 대학생, 주부, 전직 미군부대 근무자 등 다양한 국민 300명이 최종 선발되었다.

□ 참여단은 발대식을 기점으로 2월까지 사전 온라인 학습(e-러닝)을 통해 용산공원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, 3월부터 본격적인 논의활동을 추진할 계획으로

- 주변부 도보투어, 토론회, 소모임 활동, 워크숍 등을 통해 ①공원의 정체성, ②공원의 생태·역사·문화적 국민활용, ③공원에 대한 지역 사회 관점에서의 의제 발굴, ④용산공원 일대 역사문화유산 이해 총 4가지 주제*에 대해 논의한다.

* 조성계획안 수립과정('12~'20년)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검토·정리하여 최종 4개 주제를 선정

- 참여단은 다양한 시각에서 '12년 국제공모 당선자가 제안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, 6월까지 국민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.

□ 한편, 이날 발대식에서는 용산공원 명칭 공모전(10.19.~12.4.)을 통해 접수 된 총 9,401건 응모작 가운데 전문가 심사 및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“용산공원”으로 확정 발표하고, 우수 공모작에 대한 시상도 함께 했다.

-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는 제4회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(1.14.~1.15.)하여 “기존 명칭인 용산공원은 약 10여 년간 사용되어 국민들에게 친숙하고 부르기 쉬우며, 직관적으로 대상이 떠올려진다는 장점이 있다”는 의견과 함께 “기타 우수 제안들은 공원의 들판·언덕·호수·마당 등, 공원 세부 지명으로 활용할 것”을 제안했다.

< 공원 명칭 공모전 우수작 >

순위	명 칭	의 미	상훈
1	용산공원	10여년간 사용되어 친숙하고 부르기 쉬우며, 직관적으로 대상이 떠올려짐	-
2	용산열린공원	자유와 평화의 땅으로 열린공간, 무한한 가능성과 국민 참여가 열린공원	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위원장상
3	용산미르외공원	용(미르)과 산(외)의 순 우리말	국토교통부 장관상
4	용산늘품공원	앞으로 더 좋게 발전하라는 순우리말, 시민의 더 나은 삶을 늘 품어주는 공원	서울특별시 시장상
5	용산국가공원	제1호 국가공원으로, 국민의 사랑을 받는 힐링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	한국주택토지공사 사장상

* 공모지침 상 기존명칭은 심사 제외대상이므로 ‘용산공원’은 시상에서 제외

□ 명칭 공모와 함께 시행된 사진 공모전에는 용산 미군기지과 관련된 개인 소장 사진 총 191건이 접수되었으며, 관계기관은 역사성·상징성·의미성 등이 뛰어난 우수작 3건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.

- 심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“용산기지와 관련된 국민들의 추억과 기지의 특수한 문화, 경관 및 생활상 등이 잘 드러난 사진들이 다수 응모되었다”고 밝히면서, “특히,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통해 귀중한 사진들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”이라 덧붙였다.

< 용산공원 사진 공모전 우수작 >

우 수 작	사진 설명 및 주요 심사평
 출동 대기 중인 헬기	○ 기지 내/외부 상황 대조가 잘 표현되어 있고, 공간의 역사성 및 사진의 의미성이 잘 드러남 ○ 빌딩 숲속에 둘러싸인 용산기지 내 헬기장이 센트럴 파크의 모습을 연상

우 수 작	사진 설명 및 주요 심사평
 기지 내 양복점	○ 미군부대에서 말하는 한국인의 삶이 잘 포착, (사진에 있는)액자 속의 사진들과 오브제들이 특수한 상황을 잘 설명 ○ 미군들의 생활문화와 생각을 의복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한국인의 시선으로 구현하는 일상을 압축한 공간
 고된 훈련을 마치고, 언제나 다 함께 한 컷	○ 훈련이 끝나면 기지사령관부터 군무원들, 말단 이등병까지 모두가 본부 건물 앞에 함께 모여 기념사진을 찍고 식사를 하며, 서로 더욱 돈독해지는 용산기지만의 전통이 잘 드러남 ○ 어색한 동지애를 느꼈을 그들의 하루를 상상해 볼 수 있는 사진

-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은 “참여단 여러분들이 꿈꾸고 제시해주시는 다양한 모습과 비전이 용산공원을 완성하는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”이라면서, “국민의 대표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다양한 참여와 활약을 해주시길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